Book Band 10 . Working as a Team - Divided We Fall

Cover Note?

- 스토리 북의 앞면과 뒷면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읽기 수업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Front Cover Note	
Before reading (책을 읽기 전)	책을 읽기 전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책의 앞뒤 표지를 함께 보세요. 페이지를 넘기며 그림을 살펴 보세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 로봇 이야기가 나오는 다른 책을 읽은 적이 있나요? • 동화 속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속도에 맞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Tricky words (헷갈리는 단어)	Here are some tricky words that your child will read in this book: 다음은 아이가 책에서 처음 접하게 되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buggy (카트: 문과 지붕 없는 차) / complained(불평하다) / sarcastically(빈정대는, 비꼬는) / accident (사고) / rebellion (반역) / sponge (스폰지) / spanner (스페너) / pincers (집게발)

Back Cover Note	
After reading (책을 읽은 후)	책을 읽은 후 아이와 같이 이야기 해 보세요. 아래의 질문을 물어보세요: • 왜 캣, 앤트, 타이거가 맥스를 혼자 두고 갔나요? 그들이 잘 했다고 생각하나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나요? • 타이거는 왜 새로운 로봇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나요? 새 로봇들은 무엇을 원했나요? • 이 책이 좋았나요? 왜 좋았고, 왜 싫었나요? 아이가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하버 읽도록 지도해주세요. 읽기에

	자신감과 실력을 쌓아줄 것 입니다.
Other things to do (다른 액티비티)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세요. 아이들이 원한다면, 로봇을 만나는 이야기를 스스로 쓰거나 그려볼 수도 있어요. 또는 아이들이 새로운 로봇의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어요 - 3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Book Band 10 . Working as a Team - Divided We Fall

Storybook?

- 스토리 북 교재 내용에 대한 번역입니다. 수업 준비 시, 미리 참고하세요.

Storybook	
2pg.	주인공 소개
3pg.	The same … or different?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4pg.	Chapter 1 - A clean start (1 장 - 청소 시작) 소인이 된 친구들은 맥스의 정원에 있었어요. 로버라는 앤트의 애완 로봇도 거기 있었지요. 그들은 모두 소형-버기를 세차하기로 했지요. 버기는 아이들과 함께 많은 모험을 해서 매우 더러워져 있었어요.
5pg.	"우리 꼭 이거 해야 해?" 타이거가 투덜거렸어요. "지루하다구." "바퀴에 진흙이 잔뜩 끼었어," 맥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버기를 반짝반짝 닦아야만 해. 고장이 나서 어딘가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잖아, 안 그래? 같이 하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6pg.	"그렇게 말한다면야," 앤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렇다면," 맥스가 말을 이었어요, " 너희 셋은 물통에 물을 좀 담아올래?" "네, 알겠습니다," 타이거가 비꼬듯이 대답했어요. 그는 맥스가 뭔가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7pg.	"에이, 타이거," 캣이 말했어요. "재밌을지도 모르잖아." "물통 나르는 일이? 재미있다고? 물고기랑 머리 박치기하는 것만큼 재미있겠다. 난 스케이트보드나 종일 타고 싶어."
8pg.	아이들은 계단처럼 쌓인 화분을 밟고 올라갔어요. 타이거는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물통을 채우기 시작했지요. "조심해," 앤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타이거가 물에 빠졌어요! 다행이도 그는 수영을 잘해서 곧 기어올라 왔어요.

9pg.	그들은 물통을 들고 맥스에게 돌아갔어요. “흠뻑 젖었네,” 그가 타이거에게 말했어요. “뭘 한거니?” “사고였어,” 캣이 타이거를 감싸며 말했어요. 맥스는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어요.
10pg.	Chapter 2 - Rebellion! (반란이다!) 맥스는 그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곧 한 사람씩 다른 일로 분주해졌지요. 앤트는 버기 안을 청소했어요. 그는 가장 키가 작아서 구석구석 구멍까지 손이 닿았거든요. 캣은 측면을 닦아서 반짝반짝 윤이 나게 했어요.
11pg.	맥스는 열심히 진흙을 벅벅 닦으며, 앞면을 청소했죠. 타이거는 가장 지저분한 일을 맡았어요 - 바퀴 청소 말이죠.
12pg.	“타이거, 얼룩이 있잖아,” 맥스가 말했어요. “방금 내가 청소하려던 참이었어,” 타이거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곧 타이거는 청소에 싫증이 났어요. 그는 뭔가 재밌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맥스가 물을 뜨러 가기를 기다렸다가, 물통에 넣었다 뺀 스폰지를 캣에게 던졌어요. 스폰지는 그녀의 얼굴 오른쪽에 맞았지요.
13pg.	순간 그녀는 화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서 그녀는 웃기 시작했죠. 그녀는 자신의 젖은 스폰지를 타이거에게 던졌지만, 타이거가 숨어버려 스폰지는 앤트에게 맞았어요. 곧 세 친구들은 모두 젖은 스폰지를 서로 던지면서, 깔깔대며 웃었어요. 로버는 안전하게 물러나 있었지요. 그는 물을 싫어했거든요. 맥스는 돌아오자마자 타이거가 물통에 든 차가운 구정물을 맞았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다가 버기에 부딪혔지요. 버기 아래쪽에 쾅! 부딪혔어요.
14pg.	“이런, 미안해, 맥스,” 타이거가 말했어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죠.

	맥스는 화가 잔뜩 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가 소리쳤어요. “버기가 고장났을지도 모르잖아.” 그는 친구들에게서 등을 돌려 버기를 살폈어요. “최악이군,” 타이거가 작게 말했어요. “가자, 캣. 가서 다른 거 하고 놀자.” 그래,” 캣이 말했어요. “난 하루 종일 청소하는데 지쳤어.” “막 끝나가는 참인데,” 앤트가 말했어요.
15pg.	로버가 그들을 향해 삑삑 신호를 보냈어요. “무슨 뜻이야, 로버?” 앤트가 물었어요. 로버가 다시 삑삑 두 번 소리를 냈어요. “얜 우리가 여기 있길 바라는 것 같은데,” 앤트가 말했어요. “원하면 너나 남아,” 타이거가 말했어요. “난 갈 거야.” “나도,” 캣이 말했어요. 앤트는 마지못해 그들을 따라 갔어요. 아이들이 떠나자, 작고 빨간 로봇은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16pg.	Chapter 3 - Adventure playground (3 장 - 모험의 놀이터) 캣, 앤트, 타이거는 맥스네 정원 끝까지 내려갔어요. 그곳은 맥스의 아빠가 정원도구와 다른 잡다한 물건들을 모아둔 곳이었어요. “멋진데,” 타이거가 말했어요. “이거 보여?” “모험의 놀이터를 만들자,” 앤트가 말했어요.
17pg.	“최고야!” 모두 말했어요. 아이들은 함께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점프할 수 있는 허들을 세우고, 삽을 거꾸로 세우고 낡은 실패 위체 작은 나무 판자를 얹어 시소를 만들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한 일 중에 제일 재밌다,” 캣이 낡은 침대 스프링 위에 타고서 말했어요.
18pg. 19pg.	타이거는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맥스를 혼자 버기 청소하도록 내버려둔 건 치사했던 것 같아. 내가 가서 그를 데려올게. 그도 이 놀이터를 좋아할 거야.” Chapter 4 -What's wrong, Rover? (4 장 - 왜 그래, 로버?)

	“누가 나에게 스페너 좀 갖다줄래?” 맥스가 버기 아래서 소리쳤어요. 그는 버기를 고치는데 너무 집중해서 다른 아이들이 가버린 걸 몰랐어요. 아무도 답이 없자, 그는 밖으로 기어나왔어요. 로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다른 애들이 어디 갔지?” 그가 말했어요. 그는 친구들에게 소리쳤던 게 미안했어요.
20pg.	로버가 시끄럽게 삑삑 거렸어요. “왜 그래, 로버?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로버가 그의 손을 끌고 잡아당겼어요. “무슨 일 있어?” 맥스는 갑자기 걱정이 됐어요. “내가 널 따라가길 바래?” 로버는 다시 다른 아이들이 간 곳으로 그를 끌어당겼어요. “좋은 생각이 있어,” 맥스가 말했어요.
21pg.	Chapter 5 - Some new friends? (5 장 - 새로운 친구들이라고?) 타이거가 막 맥스를 데리러 가려 했을 때, 그는 수풀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엇, 거기 로버 아냐?” 그가 말했어요. 그건 분명 상냥한 작은 로봇이었어요. “숨어서 뭐해, 로버?” 캣이 물었어요.
22pg.	앤트는 나뭇잎 사이에 반쯤 숨어 있는 빛나는 빨간 로봇을 쳐다보았어요. “잠시만,” 그가 말했어요, “좀 이상한데 …” 바로 그 때, 또 다른 빨간 로봇이 첫 번째 로봇 옆에 나타났어요. “잠깐만, 로버가 둘이야,” 타이거가 말했어요. “그는 친구를 만난 게 틀림없어. 멋진데? 쟤네랑 놀자.”
23pg. 24pg.	타이거는 로봇에게 다가갔어요. “조심해,” 캣이 경고했어요. “뭔가 기분이 나빠.” “바보같이 굴지마,” 타이거가 어깨너머로 돌아보며 말했어요. “로버는 착해, 안 그래? 로버 친구도 분명 착할 거야.” 그가 그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세 번째 로봇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도… 타이거는 웃기 시작했지만, 그 때 그는 이 로봇들이 로버처럼 전혀

	상냥해 보이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야비해 보였죠. 그는 완전히 둘러싸였어요. 네 로봇은 타이거 쪽으로 점프해왔어요. 그들은 그의 팔다리를 바닥에 고정시켰어요. 그는 움직일 수 없었죠. 그들 중 한 로봇이 집게발을 뻗어 타이거 손목의 시계를 끊으려 했어요.
25pg.	"도와줘!" 타이거가 소리쳤어요. "그들이 네 시계를 원하는 것 같아," 캣이 소리쳤어요. "어떡하지?" 앤트가 울상이 되었어요. "얘네가 너무 강해," 타이거가 소리쳤어요. "가서 맥스를 데려와!" 캣과 앤트는 겁에 질려 서로를 바라봤어요.
26pg.	Chapter 6 - Max to the rescue (구출하러 온 맥스) 갑자기 우르릉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버기를 탄 맥스였어요. 그는 타이거를 향해 집게발을 딱딱거리고 있는 로봇을 들이받았어요. 그러자 그는 방향을 바꿔 물러났죠. 그 로봇은 달아났어요. 다른 세 로봇도 잽싸게 뒤로 물러났죠. 맥스는 끼익 하고 멈췄지요. "어서!" 그가 소리쳤어요. "빨리 타."
27pg.	캣과 앤트는 타이거를 도와 버기에 탔어요. "무슨 일이야?" 맥스가 말했어요. "이 많은 로버들이 다 어디서 온 거지?" 그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앤트는 로봇들이 버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가 소리쳤어요. "어서 도망치자!" 맥스가 시동을 걸자 버기는 달려갔어요.
28pg.	그들은 잔디밭을 가로질러서, 돌 사이를 지나 진흙 위를 미끄러져 갔어요. 타이거가 깨끗하게 닦은 바퀴는 다시 더러워졌고, 진흙이 바퀴에 끼자 버기는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오, 이런!" 타이거가 소리쳤어요. "그들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

	한 로봇이 단단한 강철 턱으로 버기의 한 쪽을 잡았어요. “얘가 우릴 잡았어!” 앤트가 소리쳤어요. 맥스는 버기를 더 빨리 운전하려고 했지만 바퀴는 이제 진흙이 너무 많이 끼어서 속력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맥스는 방향을 바꿨어요. 그는 웅덩이 속으로 직진했어요.
29pg.	“뭐 하는 거야?” 캣이 소리쳤어요. “날 믿어봐!” 맥스가 말했어요. 버기는 웅덩이 속에서 흙탕물을 튀겼어요. 바퀴가 돌아가면서, 진흙이 씻겨 나갔어요. 구정물이 로봇들에게 온통 튀었어요. 그러자 로봇이 매달려 있던 버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고, 그 로봇은 진흙탕에 빠져버렸어요. 그들은 도망에 성공했어요! 그들은 다시 달려갔어요. 로봇들은 첨벙거리며 진흙 속에 빠져있었어요.
30pg.	“정말 구사일생이었어,” 앤트가 말했어요. “정말 미안했어, 맥스,” 캣이 말했어요. “우릴 구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곤경에 처한 걸 어떻게 알았어?” “로버 때문이야. 그가 다른 로봇들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 “그들이 무얼 찾고 있었을까?” 앤트가 말했어요. “그들은 내 시계를 원했어!” 타이거가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온 거지?”캣이 말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맥스가 말했어요. 그는 그들이 시계를 발견했을 때 같이 있었던 메모를 떠올렸어요: 시계의 비밀을 지켜라. 시계를 보호하라. “이게 모든 것의 열쇠야,” 그는 말을 이었어요. “만약 누군가가 시계를 손에 넣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시계를 지켜야만 하는 거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에 너희들에게 소리쳤던 거 미안해,” 맥스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거 알아?” “뭐?” 다른 아이들이 동시에 말했어요. “팀이 함께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란 거. 누구 버기 운전 해보고 싶은 사람?”

31pg.	Me! (나!)
32pg.	Find out more … (다른 이야기) 다른 팀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싶다면… Let's Fomr a Band 를 읽어보세요! 로봇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고 싶다면 … A Nasti Surprise 를 읽어보세요.